

# '3퇴'와 평안

제 325기 2018년 7월 12일

2018년 7월 2일까지 해외 대기원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중공의 당, 단, 대 조직 탈퇴를 성명한 인원:

3억 911만 명

## 홍콩 토론회에서 중공의 강제 장기적출 폭로, 박해 중지 촉구

[명혜망] 2018년 6월 10일, 홍콩, 대만과 해외에서 온 정계요인, 전문가, 학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파룬궁 등 종교신앙단체를 상대로 한 중공의 강제 장기적출 등의 잔인한 박해에 대한 중지와 처벌을 호소하고, 전 세계가 반공의 시각에서 전 인류에 대한 공산주의의 위해를 제거하자고 호소했다.

캐나다의 저명한 인권변호사 데이비드 메이터스는 모두 발언을 통해 중국에서 수많은 사람이 탄압을 당하고 있지만, 신앙단체만이 장기적출 형식으로 학살된다며, 티베트인, 위구르인, 지하교회 기독교도 등이 희생되는 가운데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파룬궁 수련자로, 이들은 “육체적으로 소멸하라”는 중공 정책의 희생자라고 말했다. 그는 또 말했다. “수감된 파룬궁 수련자 집단이 특히 거대하며, 거의 마르지 않는 장기 공급원입니다. 그들은 국내 감금된 인구의 대략 절반에 해당합니다.”

### 장기 판매는 중공 의료체계의 마약

2016년, 메이터스와 캐나다 전 아태담당 국무장관 데이비드 킬고어, 그리고 미국 조사기자 겸 작가 에단 구트만이 발표한 최신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중공은 매년 10만 건을 초과하는 이식수술을 진행하고 있다. “만약 대량의 장기 공급원에서 파룬궁을 중심으로 하는 양심수를 뺀다면 해석할 길이 없습니다.”

메이터스는 현재 중공 의료체계의 자금이 주로 인체 장기 판매에서 나온다고 말했다. “인체 장기 판매는 이미 (중공) 의료체계를 중독시킨 마약이 됐습니다.”

### 홍콩의 여러 정계인사, 박해 원흉 사법처리 강조

홍콩 민주당 전 주석이며 지련회 회장인 알버트 호는 국제 인권



조직이 파룬궁을 중국대륙에서 가장 심각하게 박해받는 신앙단체로 인정하고 있다며, 파룬궁 박해의 원흉을 법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콩 입법회 의원이며 민주당 주석인 우치와이도 녹음 파일을 통해 발언했다. 그는 중공의 파룬궁 박해가 가장 잔인한 범죄이며 파룬궁 수련생에 대한 강제 장기적출은 가장 사악해 인류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을 멀리 초과했다고 말했다. “이것은 한 사악한 독재정권이 양심을 버린 상태에서 벌일 수 있는 사악한 행위입니다.”

그는 이들 원흉을 반드시 법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쩌민을 포함해 이 사건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렇게 완전히 야만적인 생체 장기적출 행위를 중화민족 인민들이 겪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중공 지도자는 반드시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 성 공안청 사람이 ‘3퇴’하다

[명혜망] 갈수록 많은 중국 민중이 중공(중공과 중국은 다르다)의 사악한 본성을 깨닫고 ‘3퇴(국외 탈당 사이트에서 퇴당, 퇴단, 퇴대 성명 발표)’를 선택하고 있다.

### 성 공안청 사람이 ‘3퇴’하다

[랴오닝 투고] 나는 일찍이 한 사업을 경영하면서 ‘3퇴(퇴당, 퇴단, 퇴대)’하여 평안을 보전할 것을 알렸다. 그 과정에서 ‘3퇴’에 동의한 사람 중에는 성 기율위원회 간부, 시청 간부, 법원 관계자, 군대 군관, 친척 방문 중인 해군 군관, 외항부대 군관 등 등이 있었다.

한번은 진상을 알리던 중에 나를 향해 걸어오는 50여 세의 중년부부를 만났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그들에게 인사를 건네고 파룬궁의 진상을 전면적으로 알리기 시작했다. 나는 남자에게 당신은 풍채가 아주 좋고 신분이 높은 사람으로 보이니 틀림없이 당, 단, 대에 가입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모두 가입했다면서 주머니에서 신분증을 꺼내 보이며 자신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맞혀 보라고 했다. 내가 신분증을 보니 성 공안청이라고 쓰여 있었다. 내가 말했

다. “당신은 성 공안청에서 일하시네요! 제가 알기로는 중앙당교의 당원 20~30명이 집단으로 국외 대기원 사이트의 전 세계 화인 탈당서비스센터에서 탈당을 했어요. 당신은 어떤 단위를 찾아가 탈당할 필요도 없고 돈도 한 푼 쓸 필요 없이 하늘을 향해 당, 단, 대 탈퇴를 성명한다는 말만 하면 돼요. 제가 당신을 도와 전 세계 화인 탈당서비스센터에 가명으로 안전하게 (중공의 당, 단, 대 조직) 탈퇴를 시켜 드릴 수 있어요. 당신은 예전처럼 업무 지시를 하고 직위를 유지하면 돼요. 재난이 닥쳐도 평안하게 넘길 수 있는데, 왜 하지 않겠어요?”

그는 내 말을 듣고 나서 말했다. “좋아요! 저는 (당, 단, 대에서) 탈퇴할게요.” 이후 그의 아내도 흔쾌히 공청단, 소선대 조직 탈퇴에 동의했다.

남자가 말했다. “현재 공산당이라는 탄핵비는 실질적으로 이미 망가졌다!”

[산동 투고] 나는 한 남성에게 파룬궁 진상을 알리면서 물었다. “‘3퇴’하여 평안을 보전한다는 걸 아세요?” 그가 말했다. “알아요.” 내가 말했다. “공산당이 파룬궁을 근

20년 동안 박해해서 무수히 멀쩡한 가정을 흩어지게 하고 집안을 박살냈는데, 지금도 여전히 박해하고 있어요.”

그가 말했다. “공산당은 벌써 민심을 잃었어요. 그건 마치 고목처럼 뿌리부터 가지까지 모두 썩었어요.”

내가 말했다. “공산당은 진(真), 선(善), 인(忍)을 수련하는 파룬궁 군중을 박해해 민심을 잃었어요. 시진핑과 그 가족들까지 공산당에 박해를 당했는데, 시진핑의 아버지 시중쉰은 문화혁명 기간에 공산당이 붙인 ‘반당분자 시중쉰’이라는 딱지를 달고 홍위병에게 비판을 당했어요! 시진핑은 아홉 살 때 개자식이라는 말을 듣고, 열세 살 때는 커다란 철모자를 쓰고 거리에서 끌려 다녔고, 열여섯 살에는 농촌으로 갔어요….”

그가 말했다. “시진핑이 공산당이라는 깨진 장난감을 고치는 건 불가능해요! 인심이 모두 썩었어요. 그가 공산당이 좋아지면 모든 것이 향상된다고 두 마디 말을 했지만, 권력은 손에 넣을 수 있어도 썩어버린 인심은 잡을 수 없어요. 현재 공산당이라는 탄핵비는 실질적으로 이미 망가졌어요!”

# 퇴직 군관이 ‘3퇴’ 후에 암이 사라지다

[명혜망] ‘3퇴’하여 평안을 보전하고, ‘3퇴’하여 복을 받은 이야기는 대륙에 널리 전해졌다. 아래 몇 가지 사례를 보자.

## 90도로 꺾인 허리가 펴지다

[대륙 투고] 나는 의사이다. 어느 날, 나는 허리가 거의 90도로 꺾인 78세의 노인 환자를 진료했다. 그는 추간판탈출증을 몇 십 년 동안 앓았는데, 나이가 많아 짐에 따라 유통도 갈수록 심해져 참기가 어려울 정도였다. 그날, 가족이 노인을 데리고 왔는데, 그는 통증을 견디지 못해 끊임없이 눈물을 흘렸다. 검사한 결과 의학적으로 수술을 제외하고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 외과의사는 합동 진단 후에 환자의 내과 질병이 심각해 수술을 할 수 없다며 보수적인 치료를 건의했다.

노인이 입원한 동안 나는 그가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너무나 가련해 그에게 파룬궁(파룬따파)가 불법(佛法)이며, 사람을 구하는 것임을 알려주었다. 처음에 그는 입당한 지 60년 된 노 당원으로, 중공 선전의 영향을 받아 공산당의 당, 단, 대 조직에서 탈퇴하지 않으려고 했다. 내가 틈을 내어 자비롭고도 지속적으로 그에게 파룬따파가 좋다는 진상을 알려주자 결국 이해하고 기쁘게 ‘3퇴’에 동의했다. 그리고 “파룬따파 하오(法輪大法好), 편싼런 하오(真善忍好)”를 정성껏 외웠다.

며칠 후, 노인의 허리가 점점 펴지기 시작하자 온 가족이 커다란 감동을 받고 기

쁘게 퇴원수속을 했다. 그때 이후로 내가 시내에 갈 때마다 노인이 나를 찾아와 고마움을 전했다. 나는 그에게 우리 사부님께서 당신의 고질병을 없애 주신 것이니 사부님께 감사드리라고 알려주었다.

## 퇴직 군관이 ‘3퇴’ 후에 암이 사라지다

[대륙 투고] 나의 한 친척은 군대의 간부인데 현지 병원에서 폐암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큰 병원에서 정밀 진단을 받으라는 말을 들었다. 큰 병원에 가니 폐암이라는 확진과 함께 즉시 수술을 받으라고 했다.

소식이 전해지자 적지 않은 사람이 찾아와 안부를 묻고, 위로하고, 방법을 알려주고, 의견을 내놓았다. 나는 그에게 찾아가 파룬궁의 진상과 ‘3퇴’하여 평안을 보전하는 의미를 알려주었다. 결국 군인 출신의 노 간부는 곧바로 ‘3퇴’에 동의했다. 내가 떠날 때 그는 복도에서 양 손을 들고 큰 소리로 “파룬따파 하오!”라고 외쳐 주위 사람을 놀라게 했다.

친척의 가족은 의논 끝에 성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로 결정했는데, 그 곳에서는 옛 전우로부터 편리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식솔들이 그를 성도 병원에 데려가 수술 전 검사를 하니 암 증상이 사라져 있었다. 온 가족이 놀랍고도 기뻤지만, 신중을 기하기 위해 현지 병원에서 재검사를 했는데, 결과는 역시 ‘암이 없다’고 나왔다.

## 왜 ‘3퇴’하는가?

중공은 정권수립 이후 끊임없이 운동을 일으켜 중국인 8천만 명을 살해했고, 지금은 또 ‘진, 선, 인’을 믿는 파룬궁 수련생을 잔인하게 박해하는가하면 심지어 파룬궁 수련생의 장기를 산채로 적출해 팔아 돈을 벌고 있다. 중공의 죄악은 이미 ‘사람이 다스리지 않고 하늘이 다스리는’ 정도가 되었다.

중국인은 중공의 당, 단, 대 조직에 가입할 때 모두 자신의 일생을 공산당에 바치고, 공산당을 위해 죽을 때까지 분투하겠다는 독한 맹세를 했다. 이것은 목숨을 건 독한 맹세다. 그 뜻은 당신이 자원해서 생명을 공산당에 바치고, 공산당의 한 분자임을 승인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하늘에 사무치는 중공의 죄악을 당신도 한 뒷 감당하게 되므로 천벌을 피할 수 없다. 오직 ‘3퇴(퇴당, 퇴단, 퇴대)’ 성명을 해야만 중공의 죄행과 악과에서 벗어나게 된다. 옛 말에 이르기를 “하늘에 순응하는 자가 번영한다.”고 했으니, 고귀한 중국 동포들이 빨리 ‘3퇴’함으로써 자신을 위해 아름다운 미래를 선택하기를 희망한다.



2002년 6월 구이저우에서 발견된 ‘장자석’ 단면에 ‘중국공산당망’이란 6개의 큰 글자가 나타나 ‘천멸중공(天滅中共)’이라는 하늘의 뜻을 알려주고 있다.

## [인심이 깨어나다] 공안국 간부,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 사람을 구하게 하라.”

[허베이 투고] 2018년 5월 22일, 나는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3퇴(퇴당, 퇴단, 퇴대)’하여 평안을 보전하는 진상을 알렸는데, 이날은 수많은 학생이 문 앞에서 놀다가 나의 말을 들었고, 십여 명이 ‘3퇴’에 동의했다. 하지만 내가 아직 말을 마치기도 전에 경찰차가 왔고, 나는 그들에게 납치됐다. 진상을 모르는 사람이 나를 신고한 것이었다.

파출소에 가니 한 민경이 나에게 말했다. “저기 앉아요. 당신은 어디 사는 누구예요?” 나는 먼저 선언을 했다. “나는 위법을 하지 않았으니 만약 질문에 대답한다면 곧 당신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됩니다. 당신은 나를 범인으로 대할 필요가 없고, 나는 범을 어기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청해서 내가 왔고, 여러분이 구원을 바라고 있으니 파룬궁 진상을 깨닫고 ‘3퇴’를 하는 수밖에 없고, 그래야만 하늘의 보우를 얻을 수 있어요.” 이어서 나는 평온한 마음으로 장쩌민이 1억이 넘는 파룬궁 수련생을 박해해 수많은 대법제자를 살해한 것을 이야기했다. 또 이렇게 하늘에 사무치는 대죄로 하늘의 모든 신을 진노시켰는데, 그가 어찌 이렇게 큰 죄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내가 대략 두 시간 동안 이야기를 하니 그 민경은 계속 듣고 있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는데, 그들이 이미 공안국에 보고를 했던 것 이었다. 나의 귀에 전화 속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를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 계속 사람들을 구하게 해요.” 그 경찰은 단번에 명해져 나를 보내주었다. 내가 말했다. “나는 여러분이 청해서 왔는데, 상사

가 나를 원래 있던 곳으로 데려다 주라고 하지 않았나요?”

나는 돌아오는 길에서도 계속해서 ‘3퇴’하여 평안을 보전하는 진상을 알려 몇 사람을 ‘3퇴’시키고 평안하게 귀가했다.

5월 24일, 나는 다른 소학교 문 앞에 가서 ‘3퇴’하여 평안을 보전하는 진상을 알려 사람을 구했다. 당시 학생 십여 명을 탈퇴시켰는데, 그때 그 학교의 교장이 나오더니 나를 밀며 말했다. “당신, 가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할 거야.” 그가 110에 전화를 걸자 상대방이 그에게 주소를 물었다. 나는 계속해서 그 교장에게 선(善)을 권했다. “저우융캉, 보시라이, 리둥성 같은 파룬궁 박해자들이 모두 잡혀 가지 않았나요? 사실 중국에서 파룬궁은 완전히 합법적이고, 아래에서 파룬궁 박해에 참여하는 사람은 모두 위법을 저지르는 거예요. 공산당은 끝났어요. 그의 다리 밑에 엎드려 순장품이 될 필요는 없어요.” 그는 신고를 해도 경찰차가 오지 않자 맥이 풀렸다.

그때 한 무리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둘러싸고 그를 쳐다보았는데, 40세 정도로 보이는 여성이 교장을 가리키며 말했다. “당신은 그(나를 지칭)에게 배워야 해요.” 교장은 웃었다. 또 한 사람은 호신부를 달라고 했고, 모두 한바탕 웃고 흘어졌다.

이 두 가지 일을 통해 나는 경찰과 공안 계통에서도 아주 많은 사람이 진상을 알고 파룬궁 박해에 전혀 가담하지 않음을 실감했다. 곧 중공 사당이라는 일언당이 거짓말로 세인들을 독해했지만, 파룬궁의 진상이 갈수록 널리 전해짐에 따라 박해가 이미 궁지에 빠졌다는 것이다.